

괭생이모자반 습격... 제주바다 ‘몸살’

경관 저해하고 악취 풍겨... 어선 안전조업도 방해
봄에 밀려오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1월부터 유입
도, 지난달 중합대책반 구성... 해양청화 164억 투입

“치우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일주일 걸려 수거하면 금세 쌓여서 해수욕장이 괭생이모자반 천지가 됩니다.”

지난달부터 제주지역 해안가로 괭생이모자반이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도내 해안가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모래사장 위 괭생이모자반이 페어구, 해양쓰레기와 뒤섞이며 도내 주요 관광지인 해수욕장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괭생이모자반은 선박의 스크류에 감기면 조업과 항해에 위협을 주는 만큼 어민들에게도 큰 골칫거리다.

4일 오전 제주시 이호동 이호테우해수욕장. 한편에는 괭생이모자반 더미가 넓게 쌓여 있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해양쓰레기 수거업체 트럭과 관계자들이 더미를 가리키며 논의하고 있었다.

수거업체 관계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쉬지 않고 (괭생이모자반을) 치우는 데도 3분의 1을 수거하지 못한다. 전체를 다 치우려면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양이 워낙 많고 모래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도 해서 장비 없이는 엄두도 못 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요새는 겨울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원래 괭생이모자반 유입은 봄철이 본격적이었었다”며 “조금씩 출현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시 삼양동의 삼양해수욕장의 상황도 심각했다. 모래사장 인근에 가까워지자 시큼한 냄새가 진동했다. 이곳에서는 관광객과 시민 20여 명 정도가 맨발걷기와 산책을 즐기고 있었지만 모래를 뒤덮은 괭생이모자반을 이리저리 피하느라 걸음이 바빴다.



괭생이모자반으로 뒤덮인 제주시 삼양해수욕장.

양유리기자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수거된 괭생이모자반은 1만 1611t에 이른다. 2021년 9756t, 2022년 412t, 2023년 201t, 2024년 921t, 2025년 321t 등이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따르면 1월부터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은 황해 북부에 서식하는 개체들로, 황해에서 강하게 부는 서풍의 영향으로 일부가 서해의 연안 해류를 따라 국내 해역에 출현한다.

특히 과거에는 황해 북부 해역의 수온이 낮아 괭생이모자반이 서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수온 상

승으로 서식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봄철에서 겨울철로 괭생이모자반 유입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제주도는 지난달 괭생이모자반 상황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예년에는 3월에 시작되던 대책반 활동이 지난해는 2월, 올해는 1월로 조정되고 있다.

더불어 올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양식어장 정화 사업 등 13개 사업에 총 164억원을 투입해 도내 해양 환경 정화에 나설 방침이다.

양유리기자

제주도의회 5~13일 제446회 임시회 탐라해상풍력 확장 동의안 등 처리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새해 업무를 점검하는 올해 첫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5일부터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5일부터 13일까지 제446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정을 상대로 새해 업무를 보고 받는다. 또 도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근거 등을 담은 조례안과 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동의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 때 처리하지 않고 현안 보고 형태로 내용을 우선 파악한 뒤 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으로, 1실(경영지원실)·2본부(하수·환경본부) 체제에 정원 387명으로 계획됐다.

8단계 제도개선은 지하수법 등 5개 법률에 대한 정부 권한 대다수

를 가져오는 포괄적 권한이양 과제와 카지노 및 골프장, 경마장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국제인 개별소비세를 지방세인 도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해 JDC 상임이사 추천 권한 신설, 외국 영리법인 국제대학 설립 허용, 도교육감 출마 자격 완화 등 111개 개별 권한 이양 과제로 꾸러졌다.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를 대폭 확대하는 동의안과 렌터카 요금 할인율 상한제 도입 근거를 담은 개정 조례안의 경우 이번 회기 때 심의된다. 이 중 탐라해상풍력 발전지구 동의안은 발전 규모를 현재 30MW에서 102MW로 3배 이상 늘리고, 지정 면적을 51만5000㎡에서 78만3402㎡로 15배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해양생태계가 파괴된다고 반발하고 있어 의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이상만기자

1월 제주 비 ‘찔끔’... 기온 차는 역대급

한 달간 강수량 9.4mm 그쳐
1976년 이어 두 번째로 적어
평균기온 변동폭은 12.8℃

올해 1월, 큰 기온 변동 속에 제주에 내린 강수량이 역대 두 번째로 적었다. 평년 대비 15.2%에 불과하며 ‘겨울 가뭄’을 가속화했다.

제주지방기상청이 4일 발표한 ‘2026년 1월 제주도 기후특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평균기온은 6.1℃로 평년(6.2℃)과 비슷했으나, 중·하순의 큰 기온 변동 속에 강수량은 9.4mm로 역대 최저 2위, 상대습도는 60%로 역대 최저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20일부터 기온이 급

감하면서 한달 중 일평균기온이 가장 높았던 날(15일 14.2℃)과 가장 낮았던 날(21일 1.4℃)의 차이가 12.8℃로 큰 기온 변동폭을 보였다.

지난 1월 강수량은 9.4mm로 평년(61.6mm) 15.2%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적었고, 지난해(19.6mm)보다 10.2mm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대 1위는 1976년 8.7mm였다.

지난 1월 동안 상층의 찬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으로 자주 발달해 차고 건조한 북서풍이 주로 불면서 제주의 강수량과 강수일수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이러한 건조한 경향이 지속되면서 제주의 상대습도 역시 60%로 역대 가장 낮았다.

지난 1월 내린 눈의 양은 1.9cm로 평년(4.8cm)보다 적었다.

백금탁기자



입춘날 풍기는 매화꽃향 입춘인 4일 제주시 한림공원 매화정원을 찾은 탐방객들이 매화꽃향을 맡으며 남국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바가지요금 발생한 축제, 한시적 퇴출... 5면 / 제주 주민등록인구, 올해도 감소 출발... 6면

2026년 제주경제 발전을 위한 도민토론회

JEJU 2030 경제대전환 : **제주가 먹고사는 길을 다시 짜다**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민토론회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2. 9. 14:00-16:00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

14:00~14:10	개 회 사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인사말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14:10~14:40	발 제	제주경제의 현황 진단 및 향후 5년 정책방향 논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14:40~14:50	Break time	
14:50~15:30	사회자	오유진 KCTV제주방송 부장
	농 업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관 광	서원석 한국관광학회 회장
	우 주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	김형중 한국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센터장
15:30~15:50	도민(기업인)과의 대화	